



판결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다른 사람에게 보낸 2억 원, 회사와 대표에게 갚으라고 한다면.

2억 원 반환 청구 전부 기각

전부 방어

회사와 대표자 모두에 대한 청구 기각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피 고

은감용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율

변 론 종 결 2022. 3. 29.

판 결 선 고 2022. 5.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01 의뢰인이 마주한 문제

의뢰인인 회사와 대표자는 투자자가 제기한 2억 원 반환 소송에 함께 대응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중간 전달자를 통해 투자금을 지급했는데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일부 자금이 다른 목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와 대표자에게 공동의 반환 책임을 묻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여러 사람의 계좌를 거쳤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그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은 같지 않았습니다. 어느 약정에 따라 누가 누구에게 돈을 지급했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했습니다.

02 송금 경로와 계약상 지급 관계를 구분하다

원고가 중간 전달자에게 보낸 돈 중 일부가 회사나 대표자에게 흘러간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 송금을 원고가 의뢰인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볼 약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금전의 이동만으로 청구 상대방과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송금액은 별도 투자자들의 주금 납입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의 증자 약정과 원고가 중간 전달자에게 송금한 경위를 나누어 살펴야, 서로 다른 거래가 하나의 반환 채무로 묶이는 것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대응의 핵심

자금이 이동한 사실과 원고에 대한 반환 의무의 성립을 구분했습니다.

받아야 할 돈, 떠안을 이유 없는 청구. 제대로 다투십시오.

회사와 대표에게 함께 청구된 투자금 2억 원. 해울은 모두 막았습니다.

- 직접 받지 않은 돈까지 반환하라는 소장을 받았다면?
- 중간에 다른 사람을 거친 송금의 책임을 묻는다면?
- 투자 실패를 이유로 원금 전액을 갚으라고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울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03 법무법인 해율의 대응

법무법인 해율은 회사와 대표자를 대리하여 2억 원의 부당이득·손해배상 및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별도 증자 약정에 따른 주금을 받았을 뿐, 상대방이 주장하는 2억 원을 그와 같은 법률관계로 받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중간 전달자에 대한 송금을 의뢰인들에 대한 지급으로 볼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자금 역시 다른 투자자들의 주금 납입에 사용된 사정에 비추어 원고와 의뢰인들 사이의 반환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04 판결 결과와 의미

법원은 회사와 대표자에 대한 **2억 원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사업에 돈이 들어왔다는 외형만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책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례는 투자 손실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송금 내역과 실제 계약 관계를 분리해 방어진 1심 결과입니다. 여러 투자자와 중간 전달자가 등장하는 사업에서는 계좌 흐름과 약정 내용을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결과의 핵심

회사와 대표자에게 제기된 2억 원 반환 청구 모두가 기각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회사와 대표에게 함께 청구된 투자금 2억 원. 해율은 모두 막았습니다.

- 이미 정산한 금액과 새로 청구한 금액이 뒤섞였다면?
- 계좌에 돈이 들어왔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을 요구한다면?
- 누구에게 어떤 돈을 받은 것인지 법정에서 설명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